

GRACE 선교소식

2026년 1월 GMI-GKC 선교사 현황: 62개국 306명 (자체파송 78%)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저는 이번 주간 월요일에 우리 은혜교회 EM 리더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리더 120명이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모여 뜨겁게 기도했던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며 뜨겁게 기도하는지를 보며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후 안수하며 축복기도를 드리는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분명히 받는 충만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KM 1세대의 영성과 비전이 EM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계승되는 은혜가 있어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라는 표어대로,

금년에도 열심으로 기도하며 선교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화요일에는 새해 첫 아론과 훌 중보기도 용사 및 목자부흥의 밤을 가졌습니다. “**새해에는 불 불는 신앙을 가진 중보기도자가 되자**”(딤후 1:6-8)는 말씀을 전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불일듯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신앙은 저절로 타오르지 않습니다. 받은 은사는 관리하지 않으면 식고, 불은 돌보지 않으면 꺼집니다. 신앙은 한 번의 결단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날마다 다시 불을 붙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성령의 불을 받고 세상을 복음의 불로 태웠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불로 충만함을 받고, 그 불로 끝까지 달려 세계선교를 위해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열심이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마귀의 유혹도 능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공동의회 및 부서장 회의: 2/1
- 교역자 및 그룹장 모임: 2/3
- 성도양육과정 시작: 2/11
- 예손예배: 2/12

목사님의 사역 일정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불이 우리 영혼과 교회 가운데 다시 불일듯이 타오르며,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M국

유OO / 킨OO 선교사

2월 GMI 선교대회

2월 23일~26일 기간에 베트남 하롱베이에서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GMI에 소속된 아시아 아파트 선교사님들이 함께 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칫 사역지에서만 있으면 놓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남아있는 피난민들

현재 M국은 총선을 치르고 있는 과정입니다. 쿠데타와 내전으로 시끄러웠던 정국은 많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총소리로 어지러운 곳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지 역이 고향인 피난민들은 많이들 땅과 집이 있

던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마을에는 현재 아직 돌아가지 않은 3가정이 남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키우며 지내고 있습니다.

주로 어린아이들과 부모님으로 구성된 예수마을 가족들은 아이들을 위한 쉬운 영상성경 말씀과 재미난 교재공부(색칠하고, 그림그리기 등)를 하고, 부모님들은 QT교재를 활용해서 나눔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3월 말부터 시작되는 한국어교육

따웅지도시에서 현재 양육 중인 스텝들 중에 특별히 선발된 인원과 또 새로운 접촉점을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여명이 공부할 수 있는 작은 강의실과 24명 정도까지 들어가는 큰 강의실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였으며, 곧 책걸상집기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또한 스터디 카페를 만들어 학생들이

게 트렌디한 학습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한국어는 기본과정과 6단계의 과정을 1년반~2년정도의 기간동안 학습함으로써 마스터할 수 있으며, 또한 중간에 한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도록 유학과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육은 현재 TOPIK 6급의 실력을 갖춘 킨OO 선교사가 담당을 하며, 저와 다른 선교사님들이 네이티브스피커로 말하기 부분을 지원하고, 차후에 훈련되어지는 스텝들로 보조교사를 양성코자 준비 중입니다.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GMI 총재: 한기홍 목사)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446-6200 gkcgmiusa@gmail.com

일본

송좌한 / 김정희 선교사

정착지 치바로 인도하심 (2월)

주님의 신비로운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는 도쿄 외곽의 아름다운 도시 치바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막막함이 앞섰지만, 이곳이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사역임을 즉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치바현은 공항과 디즈니랜드, 역사적 건축물 등 많은 관광자원과 인구 600만을 보유한 반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물과 녹음이 풍부한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고,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한 해양성 온난기후입니다. 또한 젊은 인구가 6번째로 많은 현으로 일본 선교의 중요한 거점으로 쓰임 받는 선교지가 되길 소망합니다.

치바베델교회 소개

치바베델교회는 올해 30주년을 맞은 귀한 신앙공동체입니다. 한인교회이지만 일본 성도들도 함께 다음 세대 선교의 장으로 복음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담임이신 정영철 목사님과 이복순 사모님은 GMS(예장합동) 선교사로 30년을 포함 총 17명의 사역자를 배출한 지혜와 영성이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이들과 협력하여 저는 중고·청년부를, 아내는 유초등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전도폭발 훈련 (2월)

2월 3일(월)~7일(금), 남서울은혜교회 주최로 국제전도폭발 일본 한인지도자 임상훈련을 18명의 Staff와 20명의 일본선교사 훈련생을 모시고 치바베델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저녁 부흥집회와 더불어 오전에는 전도폭발리더십과 개인전도 실습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본 성도들은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열린 마음을 가진 분들도 많았습니다. 노방 전도와 다대일 만남을 통해 일본인의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고,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팀 (2월, 11월)

한국교회의 일본에 대한 관심과 방문은 일본선교에 큰 힘이 됩니다. 2월 23일~28일, 이리의 복일교회 청소년들과 교사들이 '슬기로운 일본 생활'이라는 주제로 비전트립을 다녀갔습니다. 교회에서 숙식하며 낮에는 도쿄와 요코하마의 선교유적지와 교회들, 역사적 건축물과 디즈니

랜드까지 여러 곳을 다니며 일본에 대해 경험했습니다. 11월 19일~23일에는 양주백석교회 청소년과 교사 11명이 방문하여 교회에 머물며 선교비전트립을 진행했고, 홈리스 사역과 금요예배에 참여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홈리스 사역

일본의 홈리스는 오랜 경기 침체와 연관된 사회 현상입니다. 점점 고령화되고 돌봄 받을 기회가 적은 이웃으로, 교회가 돌아보고 관심 가져야 할 대상입니다.

저희는 넷째 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치바주 오공원에서 음식을 준비해 나누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25~35명의 노숙인들과 꾸준히 공원에서 예배하며 간단한 한끼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급식을 넘어,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며, 더 실질적인 도움을 베풀 봉사와 후원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연예인 초청집회 (4월)

문화와 예술은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저희 교회는 복음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도록 4월 26일 연예인 초청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개그맨 서현진 목사님의 재능기부와 사회로, 감동적인 일본 간증, 노래와 피아노 연주와 함께 다수의 연예인 선교사들이 바쁜 스케줄에도 참석해 주었습니다. 자비량으로 섬겨주신 무대에는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복음을 듣고, 문화적 장벽을 넘어 모두가 공감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본 동맹 그리스도 교단 연합행사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이지만, 2년 전부터 일본의 건전하고 보수적인 동맹 그리스도 교단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교세가 매우 약하고, 사이비 이단들의 기승으로 복음전파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파마다 이단 사이비와 관계가 없



음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교회는 고인구와 목회자의 고령화, 신학교 지원자 감소, 재정 부족 등으로 목회자 수급이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은퇴하거나 무교회 상태가 되고, 결국 문을 닫는 교회도 많습니다. 이에 교단 차원의 연합모임과 세미나, 수련회 등에 참여하며 새 힘을 얻고 일본선교에 동역하고 있습니다.

30주년 기념 부흥회와 임직식 (6월)

치바베델교회는 올해 30주년을 맞아 부흥회를 통해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겠습니다.

서원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오셔서 새벽과 저녁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오랜 동안 시행하지 못했던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을 30주년 기념 주일에 진행하여 13명의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담임목사님의 권면과 교육이 15주간 이어졌고, 교회가 성장과 부흥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모두가 기도와 헌신으로 나아갔습니다. 교회의 거룩과 부흥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어리더십캠프 (7월)

일본의 다음세대를 주님의 리더로 세우기 위해 영어리더십캠프(Global Leadership Training)를 일본에서는 처음 진행했습니다. 한국, 영국, 터키, 말레이시아, 몽골,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청소년 40명이 4박 5일 동안 교회에 숙식하며 훈련받았습니다. 단순한 영어 실력 향상이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관을 배우고 리더십을 함양하도록 돋는 시간이었습니다.

매년 이어질 캠프를 통해 다음세대 청소년이 세계선교의 주역으로, 복음의 귀한 통로가 되길 기대합니다.

공부방 및 태권도 사역

교회에서 지역 아동들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며 복음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인 자녀들만 있었지만 점차 확대되어, 배움의 기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기독교적 가치관과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공부방은 현재 초등생 2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1명에게 김정희 선교사가 수학을 중심으로 가르치며, 방과 후에는 말씀묵상과 기도, 자율학습과 개별과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교회 2층 소예배실에서 태권도 매트와 용품이 마련되는 대로 태권도 선교사와 함께 사역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탄자니아

조정석 / 남에스더 선교사

새로운 출발

오자마자 다시 이곳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준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먼저, 수돗물이 없어 빗물을 받아 사용하는 상황이라 우기철을 대비해 그동안 청소하지 않은 빗물탱크를 청소했습니다.

조정석 선교사는 20년 이상 된 차량들이 엔진과 에어컨 등이 고장이 나 수리를 해 보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메인 차량은 2년 전 엔



진고장으로 수리를 했지만, 다시 엔진에 문제가 생겨 고민입니다. 그동안 세워져 있던 굴삭기는 밧데리와 유압오일을 같고 세차를 하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남에스더 선교사는 그동안 방과 부엌에 쌓인 먼지들을 털어내고 물건들을 다시 재정리하고, 옷장에 있는 옷들과 이불에 베인 곰팡이 냄새제거를 위해 햇볕에 내다 말립니다. 그리고 텃밭을 일궈 상추, 파씨 등을 뿌렸습니다.

'기쁨의 집' 청년들

2007년부터 함께 한 10명의 아이들이 이제는 청년들이 되어 한명씩 사회에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다고 하니 결혼한 테레시아가 아들을 데리고 7시간 거리에서 오고, 대학 졸업 후 직장을 구하고 있는 투타요, 에릭과 바리카 프레드릭, 중학교 졸업한 퀸, 그리고 이곳 음카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자카리아와 바라카 조세프... 7명의 아이들이 반갑게 저희들을 맞아 주었습니다. 떨어져 있는 동안 아이들도 자립하는 시간들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가지며 살은 좀 빠졌는데, 마음과 생각들은 많이

자라 있음을 느낍니다.

유·초등학교 때 이후로 기숙사 생활들로 이렇게 함께 지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함께 지낼 수 있는 이 시간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곳은 일자리가 제한적이라 열정페이가 심하기에 대학 졸업을 하고도 실업률이 많습니다. 기쁨의 집 청년들도 직장을 얻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함으로 아픔으로 떠났던 이곳 음카타에 다시 왔습니다. 그동안의 사역경험과 저희들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15년 전 선교지에 왔던 첫 마음으로 선교사훈련을 통해 훈련된 매일 아침 기도와 말씀 앞에 머물며, 이곳에서 저희들이 어떠한 삶과 사역을 해야할지를 다시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하라고 하시는 사역들을 함으로 이 음카타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들이 세워져 가길 기도합니다.

보스니아

신운영 선교사

언어

저의 사역의 방향은 현지인들의 삶 속에 들어가 그들이 느끼는 것을 저도 같이 느끼고 같이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통해서 관계를 쌓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곳 사람들의 관계 맺는 방식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퍼주는식의 선교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젊은 세대들이 생활에서 사용되는 영어를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영어를 가지고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을 보면 4주를 기본으로 잡고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봤는데 별로 효력이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언어로 힘들어해서 어떤 미국인 선교사 부부는 사라예보에서 영어로 드리는 교회를 하지만 현지인들은 오지 않고 사라예보에 체류 중인 관광객이나 영어권 나라의 사람들이 모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현지어인 보스니아어를 통해서 천천히 관

계를 맺어야 합니다. 현지인들은 자존감이 높고 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과 사람들이 따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근본입니다.

늘 해오는 공부 방식에서 이번 달부터는 저의 기타 선생 이고르가 일주일에 세번씩 저의 집에 와서 제가 신문을 읽으면서 물고답하는식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스니아어가 위낙 성, 수, 격이 다양하다 보니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지인의 억양에 익숙해질 수 있고 한 마디라도 저도 더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도 다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정말 시간이 많이 요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언어를 하지 않으면 영원한 이방인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알기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엘딘

전에 수호메소(일종의 소고기 하몽)를 파는 청년이야기를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 친구의 이름이 바로 엘딘입니다. 독실한 무슬림인 엘딘이 어느 정도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진하고 꾸덕한 브라우니를 만들어서 선물로 주었습니다. 며칠 뒤에 가서 그 친

구가 사주는 에스프레소를 마시면서 브라우니가 어떠했나? 라고 묻자, 단 음식을 안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마음을 얻는 것을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먼저 그 친구가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나? 하고 물더군요. 그래서 이슬람과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천국에 어떻게 너희는 가냐고 묻자, 잘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 전에 올해 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 라고 짤막하게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엘딘이 그것을 언급하면서 자신은 가족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나는 죽음이 무섭지 않다. 나는 누가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라면서 감정이 격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종교인 이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신념을 은근슬쩍 들어내더군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감정이 격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에 다시 갔는데 연말이라서 집에서 수호메소를 집에서 만들기에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아버지가 나오셔서 팔고 있더군요. 계속, 천천히 관계를 이어 나가려고 합니다.

일본

이종하 / 정혜겸 선교사



「From Hokkaido to Okinawa」

일본교회 방문 축복사역

2025년 방문 사역

2025년에는 202개 교회를 332번 방문하며 교제했습니다. 그중에 일본에 와서 생활하는 중에 처음으로 방문한 교회는 95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방문 이외에 목회자 기도회나 세미나 등에서 많은 목사들과 만나 교제했습니다.

일본교회 방문 설교, 코칭, 세미나

2025년에도 거의 매주 주일에는 일본교회에서 설교하며 교제를 했습니다(26개 교회에서 60회 정도).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뿐입니다. 올해에는 교회를 방문하여 코칭하고 목회상담 세미나하는 시간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교제하며 만났던 목사님들을 기도회와 말씀 묵상 모임으로 전환하여 교제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간섭하여 주셔서 방문하는 모든 교회에 큰 위로와 하늘나라가 넘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2025년 허락해 주신 새로운 사역

Team Living Life(생명의 삶 목회 공동체)

그동안 개별적으로 만나 코칭하며 목회 상담을 해왔던 목사님들을 큐티지 「생명의 삶」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고 교제하며 함께 목회를 나누어가는 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2024년 여름에 그동안 개별적으로 교제해 왔던 목사님들을 라인 그룹으로 엮어 매일 묵상을 나누어 왔었는데 올해 2월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오프라인에서 만나 목회를 나누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부로 7팀이 모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더욱 밀도가 높은 교제가 되어 참가하는 부부도 늘고 참석하는 교회도 목회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One Day Revival 기도회

그동안 오륜교회의 다니엘기도회에 참석하며 교제해 왔던 교회의 목사님 중에서 자주 만나

운데 시코쿠지역도 거의 가 본 적이 없기에 정 선교사와 둘이만 다녀왔습니다. 토쿠시마Ken, 카가와Ken, 코치Ken을 돌아보고 세토대교를 건너 오카야마Ken, 효고Ken을 지나 오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교제하고 축복하고 돌아왔습니다. 토쿠시마를 방문했을 때는 초창기 우리 교회의 첫 일본인 성도로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며 교회를 섬겨주셨던 요시 모토상도 만나고 왔습니다.

홍순찬장로님 성선경권사님 일본 단기선교

방문 (4월 21일 - 5월 12일)

교회의 초창기 멤버인 홍장로님부부가 4주간 정도 일본선교 응원을 와 주었습니다. 참으로 힘이 되고 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일 설교로 방문하는 교회에 함께 가서 예배드리며 교제하고, 그리고 시간나는 대로 저희가 교제하는 교회를 함께 방문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로서의 큰 위로와 복의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희가 꿈꾸고 있던 선교를 현실적으로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했습니다. 일본 목사님들도 은퇴 후에 선교로 다니는 이런 모습에 큰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2024년도 다니엘기도회 감사회 1월 23일

옹기장이 시즈오카 지역 투어

7월 8일-7월 21일

옹기장이 토카이 지역 투어

10월 8일-10월 22일

일본 목회자 오륜교회 다니엘기도회 현장 방문

11월 10일-11월 13일

2026년 사역에 관하여

앞에 보고한 사역의 연장으로 크게 다음의 4 가지를 중심으로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1. 매주일 교회 방문 설교 사역
2. Team Living Life 사역
3. One Day Revival 기도회 사역
4. 이슬비사랑의 엽서 전도 사역

그동안 정혜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9월말에 다리 골절 이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않았던 힘든 시간을 지냈었는데 이제는 거의 회복되어 조심하며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골절 이후 몸의 바alan스와 면역체계에 영향이 있었는지 소화기관 계통의 불편함이 심했었고 계속 기침과 감기 독감 등으로 며칠 전까지 심하게 고생했었습니다.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신나는 소식 많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O / 김OO 선교사

내몽고 광야목장의 12월 이야기

내몽고 광야의 가장 알찬 전도의 계절인 겨울! 겨울이 영하 25도의 광풍을 몰고 돌아왔습니다. 12마리 양을 12명 제자처럼 목양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12명의 목자를 선한 제자삼길기도하며 오늘도 광야길을 걸습니다.



추수감사절 화목제 예배

쿤밍은혜교회 개척멤버 가정이 1년에 딱 한 번 인 휴가를 내고 1900km를 날아와 저희를 지원 사역해 주었습니다. 함께 예배와 기도회를 하는데 정말 감사와 감동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 화목제로 집들이 겸 예배를 드렸습니다.

양 한 마리를 잡아 통째로 끓이고, 직접 만든 한국요리 15가지 필살기로 뷔페상을 차렸습니다. 애국가도 부르고, 축복송도 부르고 어울려서 다



함께 춤도 춤어요. 사람들은 가사의 뜻이 좋다며 찬양과 아름의 축복 후렴구를 따라 불렀지요. 우리는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이 날 모인 54명이 다함께 성찬식 떡을 떼는 날을 꿈꾸었습니다.

에덴의 균황과 감사

그 사이 에덴이(만14세)는 「제1회 주니어 아시아 챔피언 루지대회」에 참가해 감사하게도 최연소 8위를 했습니다. 한국 최초 청소년 국외전지훈련에도 참가해 10일 동안 북경에서 합숙훈련을 하며 통역수행도 잘 해냈습니다. 모두 응원덕분입니다!

광야의 일상 - 목장의 삶

그 흔한 체육관도 없는 목장으로 돌아오면 친구들의 짧은 축하와 함께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일상입니다. 여전히 양을 치며, 얼음을 깨고 물을 주며, 소에게 풀을 주고, 나무를 패고, 닭과 개, 돼지 밥을 끓여 나르며 새벽부터 2만 보씩 걸으며 근력을 키우며 풀 사이를 다니는 겨울입니다.

동지의 양고기와 복음의 접점

이곳은 동지가 되면 양머리를 먹습니다. 저희에게 귀하고 비싼 한 마리를 통째로 대접해 준 분은 지난 번 결혼식을 올린 식당 주인입니다. 결혼식 축하하던 날 식당 냉장고에 십자가 스티커를 붙이고, 동지에는 레위기 1장과 화목제, 추수감사절인 장막절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성탄절에도 양을 잡고 다함께 먹으며 보냈습니다.

사촌이 천주교이며 기독교와 차이점도 물어보기에 담백하게 설명만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물들다 몽골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광야문화를 허락하신 뜻을 발견하고 자원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위 가게의 맞은편에 있는 마트 주인은 한국에서 8년을 유학했다며 저희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37세인데 자녀가 없어 25마리의 길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우리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OO / 전OO 선교사

크리스마스 전도 축제

한달 전부터 크리스마스 전도 파티에 대한 세미나와 각 교회마다 파티 전도 세미나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12월 초부터 각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크리스마스 리허설 준비를 하는 가운데 올해는 각 교회 리더들의 아이디어를 종합해서 라이브 뮤직 스타일과 또한 전통 방식 두 방식으로 공연을 하기 위해 각 파트별로 잘하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한 곳에서 매일 매일 공연을 위한 연습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 총 연습 날 라이브 뮤직 파트와 전통 방식을 최종 점검하고 무대에 올리기 위한 최종 리허설을 통해 공연을

위한 예배와 기도회를 하면서 또한 포스터를 만들고 초청장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크리스마스 전도 축제를 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축제의 간증

크리스마스 전도 축제를 하기 위해 매년마다 재정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고 무대 장치 모든 뮤직 시스템, 그리고 해마다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줄 케이크, 선물 등을 나누어 주는 재정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재정을 위해서 각 교회마다 미리 재정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여전히 재정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닐몰 목사님의 사모님과 취업을 해서 타지로 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후원을 하

고 또한 교회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부족한 재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크리스마스 전도 축제를 마쳤습니다. 각 교회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님이 2025년에도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하시고 하시는 은혜 감사해서 2026년에도 더욱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리라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축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전하면서 기쁨의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진OO 선교사

지난 세 달은 정말 놀랍고, 주님께서 주신 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아낌없는 지지가 없었다면 이 여정을 결코 걸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덮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세 달을 향해 들어가며,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는지 새삼 느낍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신실하게 저를 인도해 주셨고, 저는 지금 훈련의 세 번째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저를 다시 I-Land

로 보내셔서 그곳의 사람들을 섬기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난 세 달 동안 I-Land에서 저는 사랑의 관계들과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들로 가득 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황은 쉽지 않았지만, 이곳 사람들의 환대와 친절,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저의 마음을 깊이 만지시고, 다듬으시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도록 저를 이끄셨습니다.

올해 초에는 비자 문제로 인해 I-Land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보내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Shpine에게 연락했고, 비자 문제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모든 상

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음을 바꿔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떠나기 바로 전날, 마음 깊은 곳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고, 그날 Shpine에게서 I-Land로 돌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저는 다시 I-Land로 돌아가 친구들과 동역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과 사역의 다음 계절을 열어가고 계심을 믿으며, 그곳에 있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분명한 인도와 방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세 달 동안, 휴가 기간을 맞아 다시 I-Land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함께 걸을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OO / 이OO 선교사

#8기 졸업

2025년 11월 21일로 8기 신학생 19명이 9개 월 간의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8기생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가정교회를 시작 하며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모임이지만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8기생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국을 위해

북국의 2025년 성탄기간인 12월은 교회 핍박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것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도심은 좀 덜하지만 특히 차티스가르와 유피 지역은 곳곳이 공포였습니다. 티비에서는 모디 총리가 성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장면을 방영하면서 코스프레를 하지만, 그가 속한 힌두당의 행동대원인 ‘바즈랑달’은 성탄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부수고, 목사들을 경찰에 고발하며 감옥에 잡아 넣는 일들로 일관했습니다.

북국의 기독교 핍박과 소요는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북국 GMI 신학교 학생들은 북국의 12개 주에 퍼져 있습니다. 몇몇 곳은 예배를 위한 모임 자체가 불가능한 상

태여서 온라인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국에 퍼져 있는 전도자들과 교회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기생 비디아사가르

유피 주의 비디아사가르는 12월 7일 예배 도중에 힌두교도들의 신고로 경찰에 잡혀가 얻어 맞고, 개종 시킨다는 혐의로 소송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4일 만에 풀려나고, 다시 잡혀 들어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비디아사가르 교회의 마이크시스템과 모든 물품들을 압수해 갔고, 교회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교회문에 자물통을 채웠습니다.

비디아사가르는 성탄 축하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풀려나 12/29일 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괜찮다고, 소송이 끝나면 교회 문을 열 수 있다며, 예배는 당분간 자신의 집에서 드리겠다고 합니다. 비디아사가르가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그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고, 유피 주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2025년 교회 건축

편집의 1기생 구르짓의 ‘호산나교회’는 벽돌을 올리기 시작하다가 멈추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한다고 시크교도들이 집으로 찾아와 때리고 부수는 바람에 아내가 유산을 하게 되면서 건축은 잠정적으로 멈추었습니다. 가져갔던 건축비는 도로 가져왔습니다. 구르짓의 가정과 사역에

위로와 돌파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구루짓의 성전 건축비는 2기생 비살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비살의 ‘은혜성령교회’는 현재 80% 정도 완공되었습니다. 비살이 성령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0 GIGL(Grace India Glow of Love)

2026년 3월 3일부터 6일까지 제 10회 티디가 열립니다. 인도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기대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참 사랑과 기쁨이 회복되는 천국잔치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9기 신학생들을 위해

10기 GIGL을 시작으로 9개월 간 훈련 받게 될 9기 신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자들, 주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보내주시길,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 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026년을 바라며

살면 살수록 ‘주님의 은혜가 한량 없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인도 땅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인도 영혼들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한량이 없습니다. 저희가 무엇이란데 이다지도 큰 사랑과 이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주시는지 몸 둘 바를 모르겠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육 간에 강건함과 성령충만함, 그리고 안전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일본 송좌한 / 김정희 선교사

1. 일본 땅의 영적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복음을 기쁨으로 받는 영혼들이 되도록
2. 치바베델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전도와 선교에 힘 있는 교회가 되도록
3. 김정희 선교사의 건강 회복과 송좌환 선교사의 노안 증상이 치유되도록
4. 일본 GMS 선교사 특별과정(26.2.23~3.13) 비용과 수료가 잘 이루어지도록
5. 공부방·태권도·한글학교 사역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이 채워지도록
6. 청년들과 다음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리더로 세워지도록



탄자니아 조정석 / 남에스더 선교사

1. 저희들이 겸손함으로 늘 깨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있도록
2. '기쁨의 집' 청년들이 직장, 결혼 그리고 학교 진로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도움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3.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공간과 차량을 예비해 주시도록
(그동안 구하지 않은 것들인데, 처음으로 이 필요들을 구해봅니다.)



M국 유OO / 키OO 선교사

1. 2026년에도 사역 중에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 남은 피난민이나 돌아간 피난민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3. 총선을 끝내고 정국이 안정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4. 새로운 사역(한국어교육)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올바로 진행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5. 유OO, 키OO 선교사가 함께 동역하는 선배 선교사님들과 함께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잘 훈련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보스니아 신운영 선교사

1. 사무실 임대를 위해
2. 언어의 성장
3. 현지인과 관계 형성이 잘 되어지도록

I국 정OO / 전OO 선교사

1. 크리스마스 전도 때 와서 복음을 전해 들은 분들이 각 교회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2. 2026년에도 각 교회 목회자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교회를 잘 부흥시킬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과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3. 저희 선교 재정과 비자를 위해서
4. 두 딸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5. 저희 가족의 영육 간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I국 진OO 선교사

팀을 위한 기도

-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 깊이 사랑하고, 인내와 친절로 서로를 대하여 판단 없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내도록
- 팀원 모두가 육체적·정신적·영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도록

I국을 위한 기도

- 깊고 의미 있는 우정들이 세워지고, 옛 친구들과 사랑 안에서 다시 연결되도록
- 하나님의 마음으로 유대 민족을 온전히 사랑하도록
-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알게 되고, 유대인과 아랍 공동체 사이에 화해와 평화,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개인 기도제목

-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도록
-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그분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갖도록
-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 섬김과 가르침, 리더십과 전도에 있어 지혜와 겸손, 담대함을 갖도록
- 회개에 민감하고, 화평을 추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기쁨과 겸손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도록
- 하나님께서 제 미래를 위해 준비하신 계획을 분명히 깨닫도록
- 제 자신과 가족, 친구들 가운데 정서적·육체적·영적 치유가 있도록
-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끌 수 있는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도록
- 가족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 보호받도록
-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하도록
- 복음을 전하는 데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 확신 있게 나아가도록

선교부 광고

1.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칠레 Grace Encounter 1기 및 비전 트립
(2/4-2/10)

S/L: 안영식 목사
문의: 차윤석 집사 (714-334-2340)

- GMI 아시아 선교사 대회
(2/23-2/26)

문의: 이희경 집사 (714-337-3091)

- 튀르키예 이란 난민 인카운터 2기
(3/12-3/17)

S/L: 변재령 목사
디렉터: 김태형 집사
문의: 김규현 집사 (714-502-4399)
T/M: 2/1, 6PM, 웨딩채플

3.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 - 11:15 AM
문의: 의료선교국

4.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쥬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5.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 AM

6.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ISSION



WWW.FACEBOOK.COM/
GMIMISSION

